

# 우리나라 경제활동여성인구의 직종별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관한 융복합 연구

이정욱  
신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Problem Drinking by Job Type of Economically Active Female Population in Korea

Jeong Wook Lee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Silla-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직종별 문제음주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제6기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인구조화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및 문제음주 여부를 파악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문제음주율은 19.1% 였으며 사무직 19.1%, 생산직 24.8%, 서비스직 12.3%로 직종별 차이를 보였다. 문제음주의 영향요인 또한 직종별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직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서비스직의 경우 결혼상태, 흡연이, 생산직의 경우는 결혼상태가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의 문제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함께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융복합적인 직종별 맞춤형 음주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본 연구결과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국민건강영양조사, 복합표본,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economically active females' factors influencing problematic drinking, by their jobs. It examined the socio-demographic and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problematic drinking status of economically active females over 19, by using data from the 6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y were analyzed by using IBM SPSS 25.0 and the complex sampling design. The findings show that the problematic drinking rates of economically active females were varied by their jobs: 19.1% for office job; 24.8% for manufacturing job; 12.3% for service job. The factors influencing problematic drinking were also differed by jobs: subjective health status for office job; marital status and smoking for service job; marital status for manufacturing job. They suggest that convergent drinking management programs customized to jobs should b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s' physical and emotional traits and their jobs, to reduce their problematic drinking rates.

**Key Words**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Complex Samples, Office Job, Service Job, Manufacturing Job,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Jeong-Wook Lee(twin0829@nate.com)

Received January 28,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vised February 26, 2021  
Published April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98년 47.1%에서 2018년에는 52.9%까지 증가하였고[1]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과거 음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성인 남성에게 발생하는 것이라 여겨졌으나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와 함께 여성 음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여성의 음주 또한 음주량 뿐 만 아니라 음주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2].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연간 음주율(2005년 86.5%, 2015년 86.6%, 2018년 86.1%)은 경미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연간 음주율(2005년 70.9%, 2015년 71.6%, 2018년 73.6%)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한편, 여성의 음주는 모든 여성 집단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데,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보다 음주빈도, 음주량이 더 높고[3, 4],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중에서도 종사하고 있는 직종의 특성에 따라 음주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여성의 음주에 대한 실태조사[6]에 의하면, 직종에 따른 여성의 음주 경험비율은 사무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알코올 의존 유행율과 월 평균음주량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종의 특성에 따라 음주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술자리는 사회적 관계이며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사회생활을 위한 음주가 개인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맥락에서의 음주에 대한 기대가 더 높고[4], 술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하기 때문에[7]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음주율이 높고 직종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증가한 음주율은 음주관련문제의 경험을 증가시키며[3]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로 인한 음주는 알코올의존 등 심각한 정신질환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8]. 특히,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생리

적 특성[9]으로 인해 남성에 비해 술에 취하는 속도가 빠르며 적은 양으로도 쉽게 중독될 수 있기 때문에[10] 남성보다 음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훨씬 크며 더 빨리 만성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11]. 이로 인해 여성 문제음주자는 남성에 비하여 성폭력과 폭력 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이혼 등의 상실경험[12]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임신 초기 여성의 문제 음주는 저체중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태아성알코올증후군(Fetal alcohol syndrome; FAS)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13]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음주에 의한 다양한 부정적 폐해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출산이나 육아 등의 역할 문제를 고려해볼 때 여성의 문제음주는 여성 개인의 건강결과와는 별도로 사회적 폐해로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여성의 연간 음주율 뿐 아니라 월간 폭음율(2005년 17.2%, 2015년 23.3%, 2018년 26.9%) [1]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여성의 문제음주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듯 여성의 음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관련 연구는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 근로자 대상의 음주행동과 음주 관련 요인을 찾는 연구[9, 14-21]가 주를 이루었다.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대학생이나 일부 연령층을 대상[22-24]으로 하거나 일반 성인 여성 전체를 대상[25-29]으로 문제음주의 영향요인이나 음주행동 연구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직업군에 따른 음주행동 연구[3, 29]와 직장인의 음주폐해 요인 연구[11] 등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대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직종별 문제음주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직종별 맞춤형 음주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직종별 문제음주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종별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요인의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직종별 음주행태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직종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3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여성 3,453명 중 현재 경제활동 상태를 묻는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1,476명의 자료에서 기록이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불성실한 225명을 제외한 1,25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직종은 선행연구[16]와 같이 설문지 항목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는 사무직으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는 서비스직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는 생산직으로 분류하였고, 문제음주는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30]을 이용하였다.

AUDIT은 지난 1년간 경험한 음주행위의 빈도, 양, 음주문제 등의 10개 항목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기준[31]에 따라 7점 이하는 정상음주, 8점 이상은 문제음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제7기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는데 제6기 자료를 분석한 이유는 선행연구[2, 15-16, 18, 22, 27-29]에서 문제음주 여부를 AUDIT을 활용하고 있으나 제7기에는 AUDIT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6기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 2.2 연구변수

####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고연령에서 문제음주 빈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2, 15-16, 18, 22, 27-29]의 결과를 고려하여 만 19세에서 29세, 만 30세에서 49세, 만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결혼상태는 미혼, 결혼, 이혼/별거/사별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로 구분하였고,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 200-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 2.2.2 건강관련 특성

건강관련요인은 현재흡연, 수면시간, 만성질환이환 여부, 신체활동 여부, 스트레스 인지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자살생각 여부, 우울감 경험 여부를 포함하였다. 현재흡연은 흡연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고, 수면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미만과 7시간에서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만성질환이환 여부[8, 19, 21]는 조사 대상 질환에 대하여 의사 진단 여부를 확인하여 1개 이상 진단 받은 경우 만성질환이환군으로 구분하였다. 신체활동여부는 격렬한 신체활동, 중등도 신체활동 또는 걷기 활동 중에 1가지 이상 실천한 경우 신체활동 군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많이 느낀다, 조금 느낀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로 구분하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살생각 여부와 우울감 경험 여부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 2.2.3 음주행태

본 연구에서 대상의 음주행태는 음주 시작 연령, 음주 빈도,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빈도, 음주 후 취중 일망각 빈도, 음주로 인한 상해여부, 자동차 음주운전 여부를 포함하였다.

음주 시작 연령은 만 15세 미만, 만 15세에서 19세, 만 2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음주빈도는 월 1회 정도, 주 3회 정도, 주 4회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빈도와 음주 후 취중 일망각 빈도는 전혀 없는 경우와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거의 매일로 구분하였고, 음주로 인한 상해여부는 없었다, 있었다로 구분하였으며 자동차 음주 운전 여부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다단계층화집단추출을 적용한 확률표본이 아니므로 전체 인구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표본설계를 적용하였다. 복합표본설계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원시자료의 층화변수와 집락변수를 적용하였고 건강 설문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일반 음주여성과 문제 음주여성의 직종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음주행태에 대하여 복합표본 교차분석( $\chi^2$  검정)을 시행하였고, 직종별 문제음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복합표

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구성 시 음주 행태와 관련한 특성은 문제음주와 관련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직종별 일반음주여성과 문제음주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대상자는 1,233명이었으며 일반음주여성은 1,011명(80.9%), 문제음주여성은 222명(19.1%)이었다.

직종에 따른 일반음주여성과 문제음주여성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Problem Drinking Differences by Job

| (n=1,233, N=7,883,188) |               |             |                   |              |                  |
|------------------------|---------------|-------------|-------------------|--------------|------------------|
| Variables              | Office job    | Service job | Manufacturing job | total        | $\chi^2(p)$      |
|                        | n(weighted %) |             |                   |              |                  |
| n                      | 516 (43.8)    | 376 (30.9)  | 341 (25.3)        | 1,233 (100)  | 17.39*<br>(.001) |
| Normal                 | 421 (80.9)    | 284 (75.2)  | 306 (87.7)        | 1,011 (80.9) |                  |
| Problem                | 95 (19.1)     | 92 (24.8)   | 35 (12.3)         | 222 (19.1)   |                  |

\*p<0.001

대상자의 직종에 따른 문제음주 여부 간 교차빈도는 사무직의 경우 일반음주여성은 421명(80.9%), 문제음주여성은 95명(19.1%)이었고, 생산직의 경우 일반음주여성은 306명(87.7%), 문제음주여성은 35명(12.3%)이었으며 서비스직의 경우 일반음주여성은 284명(75.2%), 문제음주여성은 92명(24.8%)으로 서비스직의 문제음주 비율이 다른 직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7.39, p<.001$ ).

일반음주여성과 문제음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간 교차빈도를 직종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사무직의 경우 연령( $\chi^2=18.94, p<.001$ ), 결혼상태( $\chi^2=18.23,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직의 경우는 결혼상태( $\chi^2=19.27,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직의 경우는 문제음주 간 교차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2 직종별 일반음주여성과 문제음주여성의 건강 관련 특성의 차이

일반음주여성과 문제음주여성의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간 교차빈도를 직종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사무직의 경우 흡연( $\chi^2=8.82, p<.001$ ), 만성질환여부( $\chi^2=4.89, p<.001$ ), 주관적 건강상태( $\chi^2=11.36,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직의 경우

Table 2. Differences in Problem Drinking Pattern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 (n=1,233, N=7,883,188) |                  |               |          |                  |                  |          |                  |                   |          |                 |
|------------------------|------------------|---------------|----------|------------------|------------------|----------|------------------|-------------------|----------|-----------------|
| Variables              |                  | Office job    |          |                  | Service job      |          |                  | Manufacturing job |          |                 |
|                        |                  | Normal        | Problem  | $\chi^2(p)$      | Normal           | Problem  | $\chi^2(p)$      | Normal            | Problem  | $\chi^2(p)$     |
|                        |                  | n(weighted %) |          |                  | n(n(weighted %)) |          |                  |                   |          |                 |
| Age                    | 19-29            | 107(31.7)     | 43(54.5) | 18.94*<br>(.001) | 31(16.0)         | 23(27.6) | 8.51<br>(.061)   | 10(5.4)           | 1(4.0)   | 1.88<br>(.516)  |
|                        | 30-49            | 255(56.3)     | 48(40.5) |                  | 128(46.5)        | 42(47.8) |                  | 92(36.0)          | 12(48.3) |                 |
|                        | ≥50              | 59(12.1)      | 4(5.0)   |                  | 125(37.5)        | 27(24.5) |                  | 185(58.6)         | 14(47.7) |                 |
| Marital status         | single           | 127(36.3)     | 49(59.6) | 18.23*<br>(.000) | 33(14.9)         | 28(33.1) | 19.27*<br>(.002) | 8(3.3)            | 1(4.0)   | 5.39<br>(.070)  |
|                        | married          | 277(60.1)     | 43(39.0) |                  | 215(72.9)        | 45(49.3) |                  | 206(72.7)         | 23(89.9) |                 |
|                        | separated        | 17(3.6)       | 3(1.4)   |                  | 36(12.1)         | 19(17.6) |                  | 73(24.1)          | 3(6.1)   |                 |
| Education              | ≤middle school   | 13(3.1)       | 1(2.4)   | 0.948<br>(.762)  | 78(23.6)         | 14(12.3) | 5.76<br>(.076)   | 164(51.3)         | 11(33.9) | 6.87<br>(.066)  |
|                        | high school      | 79(16.8)      | 17(20.8) |                  | 134(48.0)        | 47(51.8) |                  | 92(36.4)          | 14(60.0) |                 |
|                        | ≥college         | 329(80.2)     | 77(76.8) |                  | 72(28.5)         | 31(35.9) |                  | 31(12.3)          | 2(6.1)   |                 |
| Income                 | <200 millions    | 49(11.4)      | 7(7.2)   | 9.99<br>(.076)   | 59(20.9)         | 24(21.3) | 3.16<br>(.076)   | 130(38.6)         | 7(18.7)  | 10.55<br>(.113) |
|                        | 200-399 millions | 122(30.6)     | 40(46.6) |                  | 102(34.9)        | 36(44.2) |                  | 86(32.6)          | 14(43.3) |                 |
|                        | 400-599 millions | 131(31.9)     | 30(28.6) |                  | 79(29.8)         | 20(23.5) |                  | 51(21.3)          | 3(16.7)  |                 |
|                        | ≥600 millions    | 119(26.1)     | 18(17.7) |                  | 44(14.4)         | 12(11.1) |                  | 20(7.5)           | 3(21.3)  |                 |

\*p<0.001

Table 3. Differences in Problem Drinking Patterns according to the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n=1,233, N=7,883,188)

| Variables          |           | Office job    |          |                  | Service job   |          |                  | Manufacturing job |          |                |
|--------------------|-----------|---------------|----------|------------------|---------------|----------|------------------|-------------------|----------|----------------|
|                    |           | Normal        | Problem  | $\chi^2(p)$      | Normal        | Problem  | $\chi^2(p)$      | Normal            | Problem  | $\chi^2(p)$    |
|                    |           | n(weighted %) |          |                  | n(weighted %) |          |                  | n(weighted %)     |          |                |
| Smoking            | No        | 405(95.7)     | 83(87.9) | 8.82*<br>(.007)  | 269(94.4)     | 58(60.4) | 67.01*<br>(.000) | 266(93.3)         | 24(88.7) | 0.94<br>(.412) |
|                    | Yes       | 16(4.3)       | 12(12.1) |                  | 15(5.6)       | 34(39.6) |                  | 21(6.7)           | 3(11.3)  |                |
| Sleeping time      | < 7 hours | 166(36.9)     | 42(40.9) | 2.05<br>(.524)   | 123(42.7)     | 44(47.5) | 2.42<br>(.372)   | 148(50.2)         | 17(74.9) | 7.44<br>(.056) |
|                    | 7-9 hours | 233(57.7)     | 47(50.9) |                  | 147(52.1)     | 41(44.1) |                  | 126(46.2)         | 10(25.1) |                |
|                    | ≥9 hours  | 22(5.4)       | 6(8.2)   |                  | 14(5.2)       | 7(8.4)   |                  | 13(3.6)           | -        |                |
| Chronic disease    | No        | 395(94.1)     | 94(99.4) | 4.89*<br>(.004)  | 233(84.9)     | 81(87.0) | 0.26<br>(.660)   | 197(72.5)         | 19(72.4) | 0.00<br>(.992) |
|                    | Yes       | 26(5.9)       | 1(0.6)   |                  | 51(15.1)      | 11(13.0) |                  | 90(27.5)          | 8(27.6)  |                |
| Physical activity  | No        | 239(55.4)     | 54(52.3) | 0.31<br>(.659)   | 146(51.4)     | 52(55.8) | 0.554<br>(.480)  | 162(55.0)         | 15(60.5) | 0.35<br>(.637) |
|                    | Yes       | 182(44.6)     | 41(47.7) |                  | 138(48.6)     | 40(44.2) |                  | 125(45.0)         | 12(39.5) |                |
| Stress             | little    | 41(9.0)       | 8(5.8)   | 1.07<br>(.614)   | 28(8.5)       | 6(5.8)   | 7.16*<br>(.041)  | 48(15.3)          | 1(2.8)   | 4.64<br>(.150) |
|                    | some      | 282(67.3)     | 64(68.5) |                  | 199(68.2)     | 50(56.9) |                  | 167(61.3)         | 16(62.7) |                |
|                    | much      | 98(23.7)      | 23(25.6) |                  | 57(23.3)      | 36(37.3) |                  | 72(23.5)          | 10(34.5) |                |
| Subjective health  | good      | 176(42.8)     | 35(35.4) | 11.36*<br>(.004) | 88(31.8)      | 23(26.4) | 1.26<br>(.631)   | 66(23.5)          | 8(25.6)  | 0.15<br>(.947) |
|                    | moderate  | 198(45.9)     | 56(61.9) |                  | 148(51.8)     | 50(53.5) |                  | 158(56.4)         | 14(56.9) |                |
|                    | poor      | 47(11.3)      | 4(2.7)   |                  | 48(16.3)      | 19(20.1) |                  | 63(20.1)          | 5(17.5)  |                |
| Suicidal ideation  | No        | 410(97.4)     | 93(98.6) | .489<br>(.436)   | 273(96.6)     | 83(91.5) | 4.04<br>(.079)   | 268(92.5)         | 24(95.8) | 0.47<br>(.523) |
|                    | Yes       | 11(2.6)       | 2(1.4)   |                  | 11(3.4)       | 9(8.5)   |                  | 19(7.5)           | 3(4.2)   |                |
| Depressive feeling | No        | 395(93.4)     | 83(88.5) | 2.79<br>(.097)   | 251(88.3)     | 72(75.1) | 9.48*<br>(.010)  | 240(84.0)         | 22(81.6) | 0.12<br>(.799) |
|                    | Yes       | 26(6.6)       | 12(11.5) |                  | 33(11.7)      | 20(24.9) |                  | 47(16.0)          | 5(18.4)  |                |

\*p<0.001

는 흡연( $\chi^2=67.01$ ,  $p<.001$ ), 스트레스 인지여부( $\chi^2=7.16$ ,  $p<.001$ ), 우울감 경험 여부( $\chi^2=9.48$ ,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의 경우는 문제음주 간 교차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3 직종별 음주행태 차이

직종별 음주행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산직의 음주시작 연령과 사무직의 자동차 음주운전 여부를 제외하고 각 직종의 음주시작 연령, 음주빈도, 일상생활지장 빈도, 취중 일 망각 빈도, 음주에 의한 상해 여부, 자동차 음주운전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주연령은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문제음주에서 15세에서 19세 미만이 각 57명(62.8%), 56명(68.1%)으로 많았으며, 음주빈도는 사무직과 서비스직, 생산직 모두 문제음주에서 월 3회 정도가 각 77명(76.0%), 68명(75.3%), 20명(77.9%)으로 많았다.

음주에 의한 일상생활지장빈도는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의 문제음주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가 각 41명(43.2%), 38명(51.6%), 7명(29.7%)으로 많았고, 취중 일 망각빈도는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의 문제음주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가 각 66명(68.7%), 53명(52.1%), 12명(34.0%)으로 많았다. 또한, 음주에 의한 상해여부는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의 문제음주에서는 있다는 경우가 각 19명(22.6%), 24명(27.7%), 11명(36.4%)으로 많았고, 자동차 음주운전 여부의 경우도 문제음주에서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에서 각 8명(8.3%), 11명(11.5%), 3명(10.7%)으로 많았다.

### 3.4 직종별 문제음주 영향 요인

앞서 Table 1.에서 Table 3.까지의 교차분석 결과를 통해 7개의 변수가 문제음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수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수가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은  $p<.001$ 로 유의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직종별 문제음주 영향요인은 직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직종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직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문제음주에

Table 4. Difference in drinking behavior by occupation

(n=1,233, N=7,883,188)

| Variables                          |                             | Office job    |           |                | Service job   |           |                | Manufacturing job |          |                |
|------------------------------------|-----------------------------|---------------|-----------|----------------|---------------|-----------|----------------|-------------------|----------|----------------|
|                                    |                             | Normal        | Problem   | $\chi^2(p)$    | Normal        | Problem   | $\chi^2(p)$    | Normal            | Problem  | $\chi^2(p)$    |
|                                    |                             | n(weighted %) |           |                | n(weighted %) |           |                | n(weighted %)     |          |                |
| Drinking start age                 | <15                         | 12(3.4)       | 5(6.1)    | 14.73* (.008)  | 5(1.1)        | 2(1.6)    | 37.83* (.000)  | 5(1.6)            | -        | 3.29 (.209)    |
|                                    | 15-19                       | 180(44.2)     | 57(62.8)  |                | 79(32.4)      | 56(68.1)  |                | 50(18.4)          | 10(31.1) |                |
|                                    | ≥20                         | 229(52.4)     | 33(31.1)  |                | 200(66.6)     | 34(30.3)  |                | 232(79.9)         | 17(68.9) |                |
| Drinking frequency                 | once a month                | 219(62.9)     | 9(13.3)   | 89.28* (.000)  | 144(63.9)     | 7(6.7)    | 101.63* (.000) | 118(60.0)         | 2(5.1)   | 42.59* (.000)  |
|                                    | three times a month         | 122(36.5)     | 77(76.0)  |                | 83(35.3)      | 68(75.3)  |                | 72(38.5)          | 20(77.9) |                |
|                                    | more than four times a week | 31(0.6)       | 9(10.7)   |                | 3(0.8)        | 17(17.9)  |                | 4(1.5)            | 5(17.1)  |                |
| Frequency of daily life disruption | nothing                     | 407(95.8)     | 51(53.7)  | 132.96* (.000) | 275(97.8)     | 48(44.0)  | 113.39* (.000) | 286(99.6)         | 18(58.5) | 111.44* (.000) |
|                                    | once a month                | 14(4.2)       | 41(43.2)  |                | 9(2.2)        | 38(51.6)  |                | 1(0.4)            | 7(29.7)  |                |
|                                    | once a week                 | -             | 3(3.1)    |                | -             | 2(2.9)    |                | -                 | 1(8.9)   |                |
|                                    | every day                   | -             | -         |                | -             | 4(1.4)    |                | -                 | 1(2.9)   |                |
| Oblivion frequency                 | nothing                     | 404(94.9)     | 26(28.0)  | 244.46* (.000) | 275(97.1)     | 33(31.6)  | 194.49* (.000) | 280(97.4)         | 12(52.5) | 93.21* (.000)  |
|                                    | once a month                | 17(5.1)       | 66(68.7)  |                | 9(2.9)        | 53(62.1)  |                | 7(2.6)            | 12(34.0) |                |
|                                    | once a week                 | -             | 2(2.0)    |                | -             | 5(4.8)    |                | -                 | 2(13.0)  |                |
|                                    | every day                   | -             | 1(1.3)    |                | -             | 1(1.6)    |                | -                 | 1(0.5)   |                |
| Injury by drinking                 | No                          | 420(99.8)     | 36(77.4)  | 93.08* (.000)  | 283(99.7)     | 6.8(72.3) | 79.24* (.000)  | 287(100)          | 16(63.6) | 106.57* (.000) |
|                                    | Yes                         | 1(0.2)        | 19(22.6)  |                | 1(0.3)        | 24(27.7)  |                | -                 | 11(36.4) |                |
| Drunk driving                      | No                          | 407(96.2)     | 187(91.7) | 3.59 (.100)    | 276(97.5)     | 81(88.5)  | 12.34* (.001)  | 286(99.6)         | 24(89.3) | 22.08* (.000)  |
|                                    | Yes                         | 14(3.8)       | 8(8.3)    |                | 8(2.5)        | 11(11.5)  |                | 1(0.4)            | 3(10.7)  |                |

\*p<0.00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by Occupation

(n=1,233, N=7,883,188)

| Variables          |           | Office job        |       | Service job       |       | Manufacturing job   |       |
|--------------------|-----------|-------------------|-------|-------------------|-------|---------------------|-------|
|                    |           | OR(95% CI)        | p     | OR(95% CI)        | p     | OR(95% CI)          | p     |
| Age                | 19-29     | 2.16 (0.54~8.68)  | .307  | 0.67 (0.16~2.78)  | .586  | 0.49 (0.09~2.67)    | .325  |
|                    | 30-49     | 1.26 (0.39~4.09)  |       | 1.24 (0.61~2.55)  |       | 1.39 (0.41~4.74)    |       |
|                    | ≥50       | reference         |       | reference         |       | reference           |       |
| Marital status     | singled   | 1.51 (0.36~6.32)  | .638  | 3.62 (0.89~14.79) | .022* | 11.98 (1.05~136.59) | .047* |
|                    | married   | 1.06 (0.28~4.06)  |       | 0.72 (0.33~1.58)  |       | 5.61 (1.35~23.28)   |       |
|                    | separated | reference         |       | reference         |       | reference           |       |
| Smoking            | Yes       | 2.33 (0.85~6.42)  | .101  | 9.37 (4.69~18.73) | .000* | 2.66 (0.58~12.19)   | .206  |
|                    | No        | reference         |       | reference         |       | reference           |       |
| Chronic disease    | Yes       | 0.15 (0.02~1.11)  | .063  | 1.49 (0.64~3.47)  | .354  | 1.39 (0.35~5.47)    | .638  |
|                    | No        | reference         |       | reference         |       | reference           |       |
| Stress             | much      | 1.47 (0.46~4.69)  | .121  | 1.88 (0.46~7.67)  | .629  | 7.00 (0.99~49.21)   | .148  |
|                    | some      | 1.63 (0.60~4.48)  |       | 1.55 (0.39~6.22)  |       | 5.12 (0.82~31.79)   |       |
|                    | little    | reference         |       | reference         |       | reference           |       |
| Subjective health  | good      | 3.15 (0.86~11.59) | .018* | 0.67 (0.24~1.87)  | .745  | 1.30 (0.19~8.53)    | .919  |
|                    | moderate  | 5.09 (1.43~18.07) |       | 0.77 (0.32~1.87)  |       | 1.04 (0.23~4.69)    |       |
|                    | poor      | reference         |       | reference         |       | reference           |       |
| Depressive feeling | Yes       | 2.02 (0.79~5.13)  | .137  | 1.78 (0.83~3.78)  | .136  | 1.20 (0.36~3.99)    | .772  |
|                    | No        | reference         |       | reference         |       | reference           |       |

\*p<0.001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여성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여성에 비해 문제음주 가능성이 3.15배(95% CI 0.86~11.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직의 경우는 결혼상태와 흡연이 문제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이 이혼이나 별거 여성에 비해 문제음주 가능성이 3.62배(95% CI 0.89~14.79)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을 하는 여성이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문제음주 가능성이 9.37배(95% CI 4.69~18.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직의 경우는 결혼상태가 문제음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혼 여성이 이혼, 별거 여성에 비해 문제음주 가능성이 11.98배(95% CI 1.05~136.5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제6기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직종별 문제음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문제음주자는 19.1%로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 여성의 문제음주 요인을 연구한 Kim[26]의 14.7%와 Do[4]의 1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 여성의 문제음주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상자의 문제음주율은 직종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비스직 종사자의 문제음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문제음주 가능성이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6, 20, 28]를 지지하나, 사무직[16, 29]과 생산직[19]의 문제음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서비스직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대인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업무로 인한 부정적 감정 발생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좀 더 세밀화 된 직종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상자의 음주행태의 차이는 직종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경우 음주횟수나

음주에 의한 일상생활 지장 빈도, 취중 일 망각빈도가 생산직에 비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여성들에게서 문제음주 행태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6, 16, 20, 28-29]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Moon[29]의 연구는 사무직을 전문/관리직과 사무/기능직으로 세분화하여 수행한 연구로 표본수를 고려하여 전문 관리직을 사무직으로 합해서 범주화한 본 연구결과와는 직종에 대한 분류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더욱 세밀한 직종별 분석에 따른 반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문제음주자의 음주 시작 연령이 19세 미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제음주자의 음주시작 연령이 19세 미만이 많았다는 연구결과[28, 32-33]와 일치한다. 또한, 사무직과 서비스직, 생산직의 문제음주자의 자동차 음주운전 빈도가 일반음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기음주 시작 연령이 문제음주와 음주 운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2-33]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문제음주와 조기음주 연령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 음주여성의 낮은 음주시작 연령과 문제음주자의 조기 음주 시작 연령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28, 32-33]의 결과는 경제활동을 하기 전 음주습관의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직종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유의한 변수만을 중심으로 직종별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무직의 경우 문제음주와 관련한 유의한 변수는 주관적 건강상태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여성의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카이제곱 검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만성질환 유무가 문제음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여성의 경우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2, 19]와는 일치하나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평가하지 않는 경우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21, 27]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사무직은 서비스직에 비해 문제음주율은 높지 않으나 음주에 의한 상해경험이나 자동차 음주운전 경험 등의 비율이 높아 부정적 음주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사무직의 부정적 음주행태와 비교적 높은 문제음주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16, 29]의 결

과에서 사무직의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변수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사무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서비스직의 문제음주와 관련한 유의한 변수는 결혼상태와 흡연이었다. 미혼의 경우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 및 이혼, 별거상태에서 문제음주 위험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8, 25-27]와 같은 맥락이다. 미혼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음주에 대해 좀 더 관대한 입장을 보여 문제 음주율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미혼 여성과 1인 가구 여성의 문제음주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 1인 가구의 음주 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흡연과 음주와의 관계는 이미 다수의 연구[15-16, 25-27]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음이 제시되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알코올 섭취가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하며, 흡연을 많이 할수록 알코올 섭취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흡연과 음주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는 동시적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서비스직은 타 직종보다 흡연자의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대상자에 대한 조기 선별적 접근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직의 스트레스 인지정도 와 우울감 경험은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유의한 변수였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있는 경우 문제음주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8, 18, 26-27]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근로자의 문제음주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음주를 하기도 하는데[7],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음주가 지속될 경우 문제음주의 가능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주 정책과 함께 우울 여부를 함께 파악하는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산직의 경우 문제음주와 관련한 유의한 변수는 결혼상태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생산직은 음주빈도나 음주폐해 등이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직의 업무 특성상 육체활동이 필요하기도 하고 생산직의 연령대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아 음주의 위험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음주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전국 대상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직종별 비교를 통해 여성의 문제음주에 대한 영향요인 및 음주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문제음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종별 특성과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등을 고려한 융복합적인 음주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사무직과 서비스직의 경우 흡연과 함께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 등의 심리적 요인이 문제음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 등을 인지하여 문제음주군 사업장 선정 시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한 직종별 맞춤형 음주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음주율이 높게 나타난 서비스직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적 보건정책 뿐 아니라 올바른 직장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2차 자료의 분석의 한계로 표본의 수가 몇 가지 직종을 합해서 범주화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밀한 직종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https://www.kosis.kr>
- [2] W. W. Shin. (2017).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fluencing Problem Drinking of Adult Woma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8), 923-932.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8.75>
- [3] H. J. Jun & S. K. Chung. (2008). Effects of Workplace Alcohol-related Environment on Drinking Behaviors among Female Employe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5(3), 21-43.
- [4] E. Y. Do & Y. H. Kim & J. H. Kim. (2009). Comparison of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Expectancy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Workers and Housewive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0(1), 93-106.
- [5] B. D. Hwang & J. W. Park. (2016). Effects of Workplace Drinking Environment and Individual's Intention on Problem Drinking among Female Hospital Worker.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7(2), 61-66. DOI: 10.15524/KSAS.2016.17.2.51.



- [6] <https://www.kihasa.re.kr>
- [7] J. J. Lee & E. S. Moon & J. M. Park & B. D. Lee & Y. M. Lee. (2014). Factors Affecting Drinking Behavior According to Age and Gender. *J Korean Soc Biol Ther Psychiatry*, 20(1), 54–62.
- [8] S. K. Park & E. K. Kim. (2017). The Health Behavior, Disease Prevalence and Risk Factor Analysis of High-risk Drinking Woma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1(1), 35–45.  
DOI: <https://doi.org/10.21896/jksmch.2017.21.1.35>
- [9] J. S. Ryu & K. H. Kang & J. H. Lee. (2011). Factors of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2(1), 29–42.
- [10] B. H. Lee & S. B. Lee & H. K. Lee. (2014). Safety and addiction of women focused on drinking problem. *Journal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18(1), 47–53.  
DOI: 10.21896/jksmch.2014.18.1.47
- [11] J. H. Lee & J. JeKar & K. K. Kim. (2017). The Effects of Drinking Norms for Female Workers on Their Alcohol-Related Issues. *Alcohol & Health Behav Res*, 18(1), 1–13.  
DOI: <http://dx.doi.org/10.15524/KSAS.2017.18.1.001>
- [12] S. Y. Lim & H. S. Cho & Y. H. Lee. (2005). A Case Study about Female Alcoholic's Alcohol Addictive Proces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869–886.
- [13] H. R. Park, J. J. Lee. (2011). When Woman Drink: What to Drink in What Context i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6(3), 243–263.  
DOI: <https://doi.org/10.18205/kpa.2011.16.3.001>
- [14] J. Jekarl & K. K. Kim & J. T. Lee. (2010).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rinker's characteristics, work environment, and alcohol problems among employee. *Health and Social Science*, 28, 5–31.
- [15] H. J. Park. (2018). Prevalence and related risk factors of problem drinking in Korean adult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89–397.  
DOI: 10.5762/KAIS.2018.19.1.389
- [16] E. K. Lee. (2015).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of Male Workers according to Occupational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375–382.  
DOI: 10.14400/JDC.2015.13.1.375
- [17] M. Jhon & J. Y. Lee & J. E. Hong & T. Y. Yoo. (2017). Addictive Behavior and Personality among Workers with Hazardous Alcohol Drinking.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6(4), 175–180.  
DOI: 10.4306/jknpa.2017.56.4.175
- [18] H. K. Choi & H. K. Lee. (2016). The Relations of Problem Drinking, Depressive Mood,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Worker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42(1), 29–40.  
DOI: 10.22900/kpshr.2016.42.1.003
- [19] Y. J. Park & A. R. Oh & Y. M. Oh & Y. S. Yang. (2018). An Analysis on Harmful Alcohol Use and Comparison between One-Person Household and Age Groups. *Alcohol Health Behav Res*, 19(2), 39–62.  
DOI: 15524/KSAS.2018.19.2.039
- [20] G. S. Jeon & H. Y. Lee. (2010). Associated Factors of Binge Drinking and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Men and Women.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11), 91–10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389>
- [21] E. S. Lee & H. C. Cho. (2020).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alcohol consumption patterns to mental distress and self related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11(7), 319–328.  
DOI: 10.15207/JKCS.2020.11.7.319
- [22] J. I. Kim. (2018). Comparison of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State of Drinking, Drinking Motives, and Problem Drink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8), 183–192.  
DOI: 10.5762/KAIS.2018.19.8.183
- [23] J. H. Park & S. H. KIM & J. H. Kim & N. C. Kim & H. J. Yoon.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atic Alcohol Us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 Moderating Effect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and Happiness. *Korean Society for Affective Disorders*, 16(2), 96–102.
- [24] M. S. Hoe. (2011). The Effect of Poverty on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Change of Problem Drinking and Change of Self-Esteem in Middle-Aged Wome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7(1), 89–116.
- [25] M. Y. Kwon. (2018). Alcohol Drinking Behaviors of Living Alone Wome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9(2), 87–98.  
DOI: 10.35133/kssche.20180831.08
- [26] J. I. Kim. (2019). The Factor Affecting Alcohol Use Disorder in Korean wom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2), 367–374.  
DOI: 10.14400/JDC.2019.17.12.367
- [27] S. Y. Park & S. N. Yang. (2018). Factors associated with risky drinking of adult woman: Focused on convergent impli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469–478.  
DOI: 10.14400/JDC.2018.16.7.469
- [28] E. S. Kim & H. S. Jeong. (2010). Characteristics and Factors Related to High Risk Drinking of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1(1), 45–56.
- [29] J. Y. Moon & A. R. Sohn & J. H. Yoo. (2019). Drinking Behaviors of Korean Women in Five Occupational Groups: Professionals Versus Other Groups. *Alcohol Health Behav Res*, 20(2), 41–52.  
DOI: <https://dx.doi.org/10.15524/KSAS.2019.20.2.041>
- [30] J. B. Saunders & O. G. Aasland & T. F. Babor & J. R.

de la Fuente & M. Grant. (1993). Development of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WHO collaborative project on early detection of persons with harmful alcohol consumption-II Addiction, 88(6)*, 791-804.

- [31]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Korea Health Statistics 201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3).
- [32] S. R. Han & E. S. Soe & E. J. Choi. (2016). The Effects of the Age of Early Drinking on Heavy Drinking and Drunk Driving by Gender in Korea Adults: The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VII-1, 2016). *Asia Culture Academy of Incorporated Association, 9(4)*, 1069-1082. DOI: 10.22143/HSS21.9.4.75
- [33] E. G. Kim & S. K. Park. (2015). Multi-level Analysis of the Risk Factors in Problem Drinking of High School Students. *Alcohol Health Behav Res, 16(2)*, 44-60. DOI: 15524/KSAS.2015.16.2.045

이 정 욱(Jeong-Wook Lee)

[상화인]



- 2013년 8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 행정학과 (보건행정학석사)
- 2019년 8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 행정학과 (보건행정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보건 행정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 의료데이터

· E-Mail : twin0829@nate.com